

김하린 개인전

하지

夏至, Summer Solstice

태양과 달이 멈춘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상승을 멈추고 반전되어 남중고도의 변화율이 낮아져 천구상에서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는 일 년 중 가장 낮이 길고 태양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절기이다. 김하린 작가의 '하지'는 층고가 높고 한 면 전체가 유리로 이루어진 갤러리 밀스튜디오 공간과 태양의 빛이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하지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전시에서 김하린 작가가 탐구하는 여성성과 모성은 '하지'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원초적이고 강렬한 생명 이미지와 함께, 드러나지 않던 다양한 측면들, 예를 들어 출산의 고통, 육아의 힘겨움, 모성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 또는 '모성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비난 등등의 타자화된 그림자들을 동시에 담고 있다. 넘치는 생명력과 그 너머 그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나 인정받지 못한 고통과 같은 타자화된 경험은 '하지' 안에서 온통 '불음'으로 점철된 세계로 표출된다.

잇기와 중첩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길게 드리운 붉은 천의 주된 설치 작업은 태양의 에너지, 뜨거운 열기,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피의 은유이기도 하고, 타자화된 경험의 물리적 현현으로서, 여성의 몸이 겪는 원초적인 경험들, 즉 출산의 피, 월경의 피, 때로는 폭력과 억압의 피의 은유이기도 하다. 이때 압도적이며 부드럽고 유연한 천이 생성하는 공간의 경계는 주류와 비주류, 안과 밖, 드러나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경계를 질문하고 허문다.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 예를 들면 붉은 구슬, 12각 소반, 천 등은 마치 자궁이나 태반처럼 생명의 근원을 연상시키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거나 규정된 여성성과 같다.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정체성을 질문하고, 그 안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장치가 된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이라는 존재가 겪는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타자성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대는 인류세(Anthropocene) 담론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하지'라는 자연의 절대적인 시간성을 내세움으로써, 동시대 미술이 탐구하는 생태학적 사유, 비인간 주체와의 관계, 자연의 시간성 속에서 파편화된 현대인의 삶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하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가치를 동시대 미술과 결합하여 그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로, 이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갤러리 밀스튜디오>

<‘하지’를 위한 작가 노트>

하지 1

극에 달한 태양 속에
소멸과 생성이 맞닿아 이글거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숨결이 뜨거운 날

짧은 달은 더욱 영롱할지니
소멸과 생성이 맞닿은 경계에서
하지의 영원한 순환은 굽이친다.

습기 먹은 호흡 먹고 역세계 자란 풀잎
뜨겁고 서늘한 그림자가 번갈아 좋아
몸을 파묻는 개미들.

끈끈한 꿀에 절여진 모든 것의 혼종들.
몸이 덥혀진 개미, 사슴, 인간들은
마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듯
붉게 달구어진 태양 복판에서 제자리 뛰기 한다.

하지 2

수만 개의 땀구멍이 그토록 궁금한 하지
꿈처럼 흐르다 잠시 정박한 하지는
구름을 뚫고 땀방울을 쏟아붓는다

하지 3: 나의 기도

바라옵건대,
비가 내리는 시간엔
넘치는 공기가 회박하지 않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세요.
구름장 너머 태양이 있듯, 비가 있듯
한숨과 웃음을 그러모아 올려보내니
등그렇게 찰랑거리는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니가 자라는 시간이다.
곧 니가 살찌는 시간이 다가올 거야
내 안의 작은 태양, 나의 애뜻하고 작은 신은
제일 높은 태양을 먹고, 빛을 피부에 담고, 빗물을 몸에 채우라

하지의 계절 속에
내 안의 시간은 바깥의 맹렬함과 같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그림자까지 부르는데
달은 낮에도 떠 있고
해는 밤에도 저편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이
빨강계 망각되는 시간

그토록 맹렬한 하지는
땅속에 태양을 꺾꺾 눌러 심는다